

#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전국 곳곳서 추모행사

20~29일 '기억하라·막을 수 …' 주제  
국토부·유가족협의회 등 공동 주최  
시민 추모·유가족·국민 참여 행사 등  
"진상 규명 미진…지속적 관심 부탁"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언론간담회를 열어 1주기 추모행사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오는 20~29일 진행되는 1주기 추모행사 주제는 '기억하라 12·29, 막을 수 있었다·살릴 수 있었다·밝힐 수 있다'이며, 국토부와 유가족협의회,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공동 주최한다.

공식 추모식은 참사 당일인 29일 오전 10시 무안공항 2층에서 진행된다.



1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언론간담회에서 김유진 유가족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서형우 기자

앞서 사전 행사 성격으로 ▲시민 추모대회 ▲유가족 행사 ▲국민 참여 행사가 서울과 광주·전남 곳곳에서 열린다.

시민추모대회는 오는 20일과 27일 각각 서울

보신각,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유가족 행사는 20~29일 추모 버스로 전국 주요 도시를 찾는 걸 시작으로 22~23일 트라우마 치

료, 24일 유가족의 밤, 28일 추모의 밤이 예정됐다. 추모 버스 외 행사는 모두 무안공항에서 진행된다.

국민 참여 행사는 22~29일 전국 주요 공항과 공공청사 등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분향 소가 운영된다.

또 22~28일 무안공항 일대에선 '진실의 길'이란 이름의 순례 행사가 치러진다.

이 밖에도 22일 무안공항에선 추모 전시가 개최되며 같은 날 전일빌딩245에선 '항공사고 등 참사 대응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추모행사 계획 공개와 함께 유가족들은 이날 "곧 1주기인데, 밝혀진 건 하나도 없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아무도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았고,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 FDR(비행기록장치), 관제 기록 등 그 어떤 핵심 증거도 받지 못했다"며 "유가족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제주항공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데 대한 환영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진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항철위는 국토교통부 소속이기 때문에 수사에서 독립성이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돼 수사의 독립성을 갖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에서 오던 제주항공 TC2216편은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전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서형우 기자

## 檢, '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징역 1년6개월·벌금 300만원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그의 사촌동생 A씨 등 1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 등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며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여명에게 총 2천500여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도걸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동안 직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A씨의 법인 자금 4천여 만원을 수수했고, 선거구 주민 400여명의 연락처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안 의원은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동안 "몰랐던 일"이라며 A씨와 공범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결심은 안 의원의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과 4천여만원의 추징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30일 안 의원 등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연재영 기자

## 광주서 치매 모친 부산으로 유기 40대 딸 집유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택시에 훔쳐 유기한 40대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 유기·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 한 병원 인근 길

에서 치매가 있는 어머니 B(67)씨를 택시에 훔쳐 태운 뒤 '부산 한 숙박업소까지 데려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기초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어머니 B씨와 함께 살며 보호자 노릇을 하다 부양이 벅차 이러한 행동을 했다.

부산 도심의 거리에 버려졌던 친모는 복지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연재영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봉괴 사고 희생자 발인 엄수

### 눈물 속 마지막 길…순차적 영면

광주대표도서관 봉괴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이 가족과 지인들의 배웅 속에 영면에 들었다.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장례식장에서는 김모(50대)씨의 발인식이 염수됐다.

발인식 동안 유족들은 말을 잊지 못한 채 관이 운구차로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로 작별인사를 했다.

배관공으로 일하던 김씨는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한 봉괴 사고로 매몰돼 사망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수습된 그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발인식에는 유족과 친지 등 2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유족들은 관 위에 노잣돈을 올려두고,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김씨의 발인을 시작으로 이번 사고로 숨진 나머지 희생자 3명도 이날부터 차례로 장례 절차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장례식장에서 '광주대표도서관 봉괴 사고' 희생자 중 한 명인 50대 김모씨의 발인식이 염수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무너져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으며 모두 숨졌다. /연합뉴스

를 밟는다.

미장공으로 일하던 또 다른 김모(40대)씨의 발인은 이날 오후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됐으며, 빈소를 서울로 옮긴 서도(70대)씨의 발인은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희생자 고모(60대)씨의 발인 일정은 유족과 지자체가 협의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발생했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도중 구조체가 연쇄적으로 붕괴되며 현장에 있던 근로자 4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윤찬웅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신속하고 확실한 A/S
-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